



거금 쏟아 붓는 미국 빅오일

미국 빅오일 업체 엑손모빌은 10월 11일 595억 달러(약 81조 원)를 들여 미국 셰일 시추·탐사업체 파이어니어 내추럴리소시스를 샀다. 이어 23일엔 셰브론이 530억 달러를 주고 남미 가이아나에 대규모 광구를 가진 석유개발업체 헤스를 인수했다. 2016년 셸이 영국 석유가스 기업 BG그룹을 700억 달러에 인수한 뒤 최대 규모 거래가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을 두고 잇달아 성사됐다. 각국이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석유 생산과 수요의 정점을 뜻하는 '피크 오일(Peak Oil)' 2030년 이전에 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세계적 석유가스 업체가 잇달아 M&A(인수·합병)에 나선 것이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가스 업종에서 올 들어 이뤄진 M&A 규모는 2,540억 달러에 이른다. 2014년 이후 가장 큰 액수다.

글 조재희(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현실과 이상의 충돌? 피크 오일은 언제?

2010년대 후반 대세로 여겨졌던 탄소 중립 기조와 재생에너지 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바람이 변곡점을 맞아 고유가 국면을 거치며 실탄을 쌓은 미국 빅오일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섰다. 분석이 나온다. 엑손모빌이 인수한 파이어니어 내추럴리소시스는 미국 페미안 분지에서 아직 뚫지 않은 채굴공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고, 셰브론이 M&A한 헤스는 가이아나 해저 유전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상업성이 검증된 자산을 확보하며 향후 수요 확대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조사 기관 라이스트 에너지와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인수로 엑손모빌의 석유·가스 생산 규모는 하루 420만 배럴에서 510만 배럴로 늘고, 셰브론은 390만 배럴에서 440만 배럴로 확대됐다.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로 기울었던 운동장이 균형을 찾는 가운데, 화석연료의 생명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하루 1억 70만 배럴을 기록한 전 세계 석유 수요는 팬데믹으로 쪼그라들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억 배럴을 밑돌았지만, 올해는 1억 230만 배럴로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에 나서고 있지만, 석유 생산·소비도 더 증가한 것이다. 헤스를 인수한 마이크 워스 셰브론 CEO(최고경영자)도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다. 석유 수요는 2030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 정부의 탄소 저감 노력과 전기차 확산 등에 따라 2020년대 후반에 '피크 오일'이 올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IEA는 최근 내놓은 전망에서 각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석유 수요는 2028년 하루 1억 570만 배럴을 찍은 뒤 2030년 1억 150만 배럴로 줄고, 2050년에는 9,740만 배럴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달 초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전 세계 석유 수요가 2030년 하루 1억 1,200만 배럴, 2045년 1억 1,600만 배럴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만큼

전망은 안갯속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석유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당장 10년 안에 '피크 오일'을 맞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커진 상황이다. 항공유와 석유화학 원료 등의 대체재는 해답을 찾기 어렵고, 특히 아직 경제 발전이 더딘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석유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셉 래시터 하버드대 전 교수는 "가난한 나라들은 경제 발전과 복지를 위해 발전소를 짓고, 정유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비용은 현실의 문제다. 석유 수요가 급작스럽게 줄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글로벌 업계, 합종연횡 가능성도 솔솔

업계 1, 2위인 엑손모빌과 셰브론의 M&A가 석유 시장에서 본격적인 '군비 경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BP와 아모코, 엑손과 모빌, 셰브론과 텍사코가 합병 하며 슈퍼메이저를 만든 것과 같은 대형 M&A가 잇달아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같은 영국계인 셸과 BP의 합병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아르준 머티 베리텐 애널리스트는 "경쟁을 위해선 규모와 범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M&A를 두고 "(운실가스 감축을 약속한)파리협정의 실패에 베풀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크 브라운슈타인 환경방어기금(EDF) 수석부회장은 "석유·가스기업들이 에너지 전환보다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마지막까지 싸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배럴당 8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 시기에 이뤄진 M&A라는 점에서 국제 유가가 향후 급락하면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재희(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는 국내외 산업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특히 정유 및 에너지 업계의 현황과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